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을 고려한 관광휴양 개발

김세천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Development of Tourism and Resor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Increasing the Income of Mountain Villages Region

Sei-Cheo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Agricul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64-14, 1Ka Dukjin-Dong, ChonJU, 561-756, Korea

적 요

본 연구는 현재 산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산촌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산촌개발로서 생태관광을 도입하여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촌 관광·휴양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산촌관광·휴양개발은 산촌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기본적인 목표로 시도되므로 산촌지역의 종합개발계획과 원활한 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개발의 기대효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즉, 산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산촌관광·휴양자원 개발, 기반시설 개발, 산촌생활환경 조성 등에 대한 계획구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따른 관광수요의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촌관광·휴양지를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주변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촌의 개념과 형성과정으로는 산촌의 개념정립, 산촌의 형성과정, 국토공간상 산촌지역의 분포, 농산어촌 관광개발 현황, 관광휴양과 산촌경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산촌의 관광휴양개발에는 산촌과 관광과의 연계, 산촌 관광휴양의 개발사례, 산촌의 관광휴양개발의 경제적 가치분석, 관련계획 및 법규의 분석, 산촌관광·휴양개발의 모델설정 및 지속가능한 산촌개발로서 생태관광의 도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산촌관광의 활성화 필요성 및 목적, 산촌관광의 개발 가능성, 산촌의 개발방법과 개발 우선순위 및 전북 진안군의 산촌관광·휴양개발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1. 서론

1. 연구목적

인간 생활에 있어 산림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

는 장소였고, 인간이 숲속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이주되어 온 뒤에도 산림은 인간생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중 약 65%(6,460,000ha)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생산물인 목재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그러나 산림자원이 빈

약한 반면, 목재수요는 막대하여 목재 수요의 85% 이상을 외재에 의존하는 있는 현실에서 목재자급에 산림자원육성의 목표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산촌은 과거 산간오지에서 목재생산, 목탄생산 및 광산 등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활동에 의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켜갈 수 있었다¹⁾.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심각한 문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산촌의 농가호당 소득은 평지 농촌의 60-70%정도에 불과하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최남후 지역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최빈곤 지역에 속한다. 또한 극심한 인구유출로 촌락의 존립조차 어려운 위기에 있는 인구 과소화지역으로 인구유출은 풍부한 산촌자원을 방치할 수 없게끔 되고 심지어는 폐촌상태까지 몰고간다.

산촌문제는 복잡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 평지 농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가진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을 가진다. 일반농촌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산촌문제를 다룰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산촌문제의 배경에는 산촌내부만이 아닌 60-7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의 경제개발 전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정치적 안정과 함께 절대빈곤의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도시거점 중심의 공업정책을 견지하여 도시, 공업편향적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였다.

농촌은 식량생산기지로써 주곡생산의 장이 되었으며 노동력 공급원으로서 많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출되었다. 한편 산촌은 전후 파괴된 산업시설과 주택복구를 위한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심각한 연료난, 파괴된 산림의 녹화를 담당해야만 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산림법이 입법되었고, 속성수 중심의 조림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산림보호 및 규제위주의 조림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산촌은 주위의 풍부한 산림이용을 규제당함으로서 오직 식량생산을 위한 경사지 농업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촌에 있어 농업 구조상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지의 영세 분산성으로 기본적으로 산촌농업이 불리한 점은 집약농업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경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점이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토지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기계화가 곤란하다.

둘째는 생산조건의 격심한 변화로 자원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지형변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좁은 계곡을 따라 여러모양으로 변화하고 사면의 방향에 따라 양지와 음지의 구별이 생기며 특히 고저차가 생긴다. 이러한 지형의 격심한 변화는 특정작물 생산의 단면적 확보를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산지자원의 빈약성으로 경지 이외 토지 대부분이 임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임지의 소유마저 세분화되어 있어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임업을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과거 30여년간 도시중심의 공업화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이 소외되는 가운데 산촌은 거의 무시되어 왔다. 과거 산림정책은 황폐된 국토를 복구하고 연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녹화정책에 치중하여 산림녹화는 성공하였지만 산촌에 거주하면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산촌주민에 대한 진흥정책은 미흡하였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인한 전면적인 시장개방은 앞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국토구조의 전반적인 재편성과 함께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촌 및 산촌지역에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촌지역은 시대적으로 급증하는 여가수요에 따른 경제활성화 및 환경보전의 공급처 또는 잠재적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산촌이 처해있는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산촌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산촌개발로서 생태관광을 도입하여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촌 관광·휴양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산촌관광·휴양개발은 산촌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여 시도되므로 산촌지역의 종합 개발계획과 원활한 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개발의 기대효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즉, 산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산촌관광·휴양자원 개발, 기반시설 개발, 산촌생활환경 조성 등에 대한 계획구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따른 관광수요의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촌관광·휴양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주변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촌의 개념과 형성과정으로는

- 산촌의 개념정립
- 산촌의 형성과정
- 국토공간상 산촌지역의 분포
- 농산어촌 관광개발 현황
- 관광휴양과 산촌경제

산촌의 관광휴양개발에는

- 산촌과 관광과의 연계
- 산촌 관광휴양의 개발사례
- 산촌 관광휴양개발의 경제적 가치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의 분석
- 산촌 관광휴양개발의 모델설정
- 지속가능한 산촌개발로서 생태관광의 도입

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 산촌관광의 활성화 필요성 및 목적
- 산촌관광의 개발 가능성
- 산촌의 개발방법과 개발 우선순위
- 전북 진안군의 산촌관광·휴양개발의 사례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진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산촌관광·휴양개발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분석과 산업 및 인구구조, 산촌관광·휴양의 필요성 및 개념과 산촌관광·휴양현황에 대하여 문헌조사 실시와 Internet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탐색수집하고, symposium 등의 내용을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분석하였다.

II. 산촌의 개념과 형성과정

1. 산촌의 개념정립

산촌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산촌의 개념은 한가지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 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따라 사회통념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규정될 수 있다²⁾.

또한 도시와 농촌 등과 구별되는 지역개념으로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촌을 가리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산촌이라고 하는 경우에 산지에 있는 촌이라는 막연한 지리학적 구분에서부터 비교적 원시적 농촌, 또는 임업에 의해 구분된 지역, 어느 것은 자연조건과 교통조건이 나쁘고 사회적·문화적 시설이 빈약한 산간 지역이라는 견해까지 있다.

산촌에 대한 자연환경적 개념은 우선 산촌이 형성되어 있는 토지의 지형적 특성과 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연적 특성에 의해 다른 지역과 구분되어질 것이다. 즉, 농촌은 평탄한 토지로 농사에 적합하고 사람이 부락을 형성하여 생활하기 적합한 하천이나 지형을 구비한데 비해 어촌은 바닷가에 면해 있어 바다의 존재가 촌락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촌은 산, 숲의 존재가 부락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산촌은 지형적으로 경사가 많아 평탄지에서와 같은 농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상의 생태계는 단순한 농업생태계와 달리 초본, 목본, 동물, 곤충 등 복잡한 생태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산지율이 높고 경작지율이 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산촌은 임야율이 높아 임업적인 용도로의 토지가

용이 많아 임업에의 의존성이 일반적인 농촌보다 많다. 동시에 경지율이 낮아 자연조건의 열악으로 농업 생산력이 낮은 농업한계지역으로서 조방적인 농업이용과 방치해 놓은 토지가 많은 토지이용형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농업토지의 불리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아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산업개발의 정도가 낮은 낙후지역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촌의 정의로는 임야면적 비율이 70% 이상으로써 지역내 산림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이 크고, 읍면 평균 경지율이 26%이하로서 저소득 지역이며, 인구밀도가 읍면 평균밀도인 ha당 1.44 이하로서 산업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산촌지역은 표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정비가 열악한 산간지 외의 지역으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1996년 3월기준 읍·면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촌지역의 구분지표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한 결과를 예시하면 (표 2)와 같다³⁾.

일본은 1965년부터 농·산촌이라는 개념으로 총칭하고 있으며, 농촌과 다른 산촌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촌진흥법을 제정하고 산촌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많은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다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산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95년부터 산림청에서 산림·산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50개 마을에 3,300억원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산촌진흥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산촌 구분지표(임야율, 경지율, 인구밀도)를 1996년 3월에 설정하였는데 임야율은 지역내 산림면적이 많아 산림의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큰 비율로서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은 전국 읍·면 평균치인 26%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구밀도는 전국 읍·면 평균 인구밀도인 1.44이하인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산업개발의 정도가 낮으며,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정비가 열악한 산간지역으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읍·면지역으로 하고 있다⁵⁾.

산촌지역의 개발사업은 농업의존적인 산업에서 임업중심의 1차, 2차, 3차 산업과 연계시킨 다른 사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내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산촌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오지 개발 사업은 산업 및 생활 기반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산촌 지역과 많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산촌 지역은 대부분 오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개발촉진법상의 오지개발지구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촌개발사업을 오지개발사업과 연계시켜 수행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⁶⁾. 산촌은 과거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산간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중 일부인 것이다.

표 1. 최종 선정된 우리나라 산촌지역의 구분지표

구분	임야율	경지율	인구밀도
산촌지역 구분지표	70%이상	26%이하	0<인구밀도≤1.44
선정특성 및 기준	지역내 산림면적이 많아 산림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이 높음 (임업촉진지역과 같음)	낮은경지율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지역 (전국읍*면 경지율 평균이하)	저개발 후진지역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산업의 개발이 낮은 정도로 나타내는 지표 (전국 읍*면 거주 평균 인구밀도 이하)

주): 내무부 도·농통합실시후 '96. 3. 1 기준 전국행정구역 1429 읍·면 (193읍, 1236면)을 대상으로 산촌을 구분, 구분지표에 이용된 자료: '95년 기준 해당 시·군 통계연보

표 2. 국내의 산촌지역 구분지표

년도	연구자 또는 관련 법령	입지적 구분지표	경제적 또는 환경적 구분지표	사회문화적 구분지표
1952	이탈리아의 산촌 조성법	·토지면적의 80%이상 해발고 600m이상 분포하거나 해발고의 초고 최저지점의 차이가 600m이상인 시읍면		
1962	일본 농림성 지역대책 특별위원회(산간지역)	·임야율 80%이상 ·경지율 10%이하 시정촌	·임업겸업농가율이 10%이상 ·주민의 과반수가 임업 또는 임업부속사업에 의존하면서 농업에 종사	
1965	일본 산촌진흥법	·임야율 75%이상		·인구밀도 1.16인/㎡이하
1975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조건불리 지역 중 산악지역)	EC명령	·농업활동이 유지되어야 하나 해발고가 높거나 경사가 심해서 채산성이 맞지 않은 지역	
		독일	·평균해발고 800m이상 또는 ·평균해발고 600m이상으로서 경사도 18%이상	
		프랑스	·해발 1200m이상 또는 평균경사도 25도 이상(고도산악지대) ·해발 600m이상 또는 평균경사도 20도이상(단순산악지대)	
1986	이광원	·임야율 75%이상 ·경지율 15%이상		·인구밀도 200인/㎢ ·인구감소율 년 25%이상
1988	최수명	·임야율 75-80%이상 ·도시(5만이상)까지의 접근성 1시간 이상 ·농업용 토지의 50%이상 산지		
1988	류우익	·임야율 75%이상 ·도시(5만이상)까지의 접근성 평균이하 ·농업용 토지의 50%이상 산지 ·해발 100m이상에 입지하고 기복량(1km×1km)이 100m이상		
1989	장우환·최규섭	·임야율 63.0%이상 ·경지율 24.5%이하		
1993	배재수·윤여창	·임야율 64%이상 ·경지율 21%이하		·인구밀도 176인/㎢미만 ·인구밀도 146인/㎢미만
1993	일본의 특정농산촌법	·구배 1/20이상인 발면적이 전체 발면적의 50%이상 ·농지율 81%이상지역 ·임야율 75%이상	·15세 이상 인구중 농림업 종사자율이 10%이상	
1997	산림청	·임야율 70%이상 ·경지율 26%이하		·인구밀도 ha당 0이상 1.44이하

2. 산촌의 형성과정

산촌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산촌의 변화해 온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강토는 농경에 알맞은 평활한 땅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산악으로 덮여 있다. 인구의 증가로 식량증산과 연료채취를 위하여 산기슭이 개간되었고 이러한 개간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산촌이 형성되었다고 본다⁷⁾.

산촌의 원형은 화전촌으로 1966-1979년 동안 화전정리사업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많은 화전민들이 그들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옮겨 산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⁸⁾.

지리산과 백운산에 둘러싸여 전통적인 화전농업을 실시했던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간전면에 산재해 있는 자연부락의 경우 산림부산물을 이용하여 가계경제를 이끌고 가는 대표적인 산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례군이 양봉을 하고 밤나무를 개발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산림부산물 중심의 산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으로 산채수입으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의 진부면과 대화면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⁹⁾.

3. 국토공간상 산촌지역의 분포

국토공간상 각 도별 산촌지역으로 구분된 읍·면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¹⁰⁾.

전국 72개 시지역중 산촌지역 읍·면이 포함되어 있는 시지역은 35개로서 전체 시지역 중 48.6%이다. 전국 93개 군지역 중에서 산촌지역 읍·면이 군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수는 69개로 전체 군지역의 약 74%를 차지한다. 이는 산촌지역이 시단위 보다는 군단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193개 읍지역 중 산촌지역으로 분류된 읍수는 23개읍으로 전체 읍지역 중 약 12%를 차지하고, 전국 1,236개의 면지역 중에서 산촌지역으로 분류된 면은 475개면으로 전체 면지역 중 산촌지역으로 분류된 비율이 전체 읍지역 중 산촌지역으로 분류된 비율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분포 상황으로는 경상북도가 121개 읍·면으

로 산촌으로 분류되어 전체의 498개 읍·면의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강원도는 93개읍·면으로 전체의 18.7%, 경남은 82개 읍·면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여 경북, 강원, 경남에 산촌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촌지역의 국토공간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강원도 거의 전지역과 경북 중심부를 제외한 동서부 지역인 청량산과 주왕산, 경남은 가지산과 지리산 주변, 전남은 지리산 주변과 무등산, 조계산, 전북은 덕유산, 내장산, 마이산, 충북은 월악산과 속리산, 경기지역은 화학산과 명지산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충남은 칠갑산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¹¹⁾.



그림 1. 산촌지역의 국토공간상 분포도

4. 농·산·어촌 관광개발 현황

농·산·어촌의 관광자원은 농어촌 휴양단지 (표 4),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표 5), 민박마을(표 6)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산·어촌으로 흡수하여 도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방안을 위하여 1984년부터 농어촌

표 3. 각 도별 산촌지역으로 구분된 읍·면 행정구역

구 분	시·군 (읍·면)
경기도 29 (5.8%)	남양주시(수동, 조안), 양주군(장흥), 여주군(금사), 광주군(실촌, 도척, 퇴촌, 중부), 포천군(내촌, 신북, 창수, 일동, 이동, 화현), 가평군(가평, 설악, 외서, 상, 하, 북), 양평군(강하, 옥천, 서중,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 안성군(금광)
강원도 93 (18.7%)	춘천시(동, 동산, 신동, 남, 남산, 서, 사북, 북산), 원주시(소초, 호저, 지정, 부론, 귀래, 홍업, 판부, 신태), 강릉시(성산, 왕산, 강동, 옥계, 사천, 연곡), 삼척시(도계, 원덕읍, 근덕,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 홍천군(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 남, 서, 북방, 내), 횡성군(우천,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 영월군(상동, 중동, 하동, 북, 남, 서, 주천, 수주), 평창군(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도암), 정선군(정선, 신동, 동, 남, 북, 북평, 임계), 철원군(서, 근남), 화천군(화천, 간동, 하남, 상서, 사내), 양구군(양구, 남, 동, 방산), 인제군(인제, 남, 북, 기린, 서화, 상남), 고성군(간성, 현내, 죽왕, 토성), 양양군(서, 현북, 현남)
충청북도 45 (9.0%)	충주시(살미, 상모, 노은, 양성, 산척, 소태), 제천시(봉양, 금성, 수산, 덕산, 한수, 백운, 송학), 청원군(낭성, 미원), 보은군(내속리, 마로, 수한, 회북, 내북, 산외), 옥천군(안내, 청성, 군서, 군북), 영동군(횡간, 추풍령,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화산, 양산), 진천군(백곡), 괴산군(장연, 연풍, 칠성, 문광, 청천), 단양군(단성, 대강, 가곡, 양춘, 어상천, 적성)
충청남도 22 (4.4%)	천안시(광덕, 북), 공주시(유구, 반포, 정안, 사곡, 신품), 보령시(청라, 미산, 성주), 아산시(송악), 논산(벌곡), 금산군(군북, 남이, 진산, 북수), 부여군(은산, 외산, 내산), 청양군(대치, 정산), 예산군(대술)
전라북도 52 (10.5%)	정읍시(칠보, 산내, 산외), 남원시(주천, 산동, 산내), 김제시(금산), 완주군(상관, 소양,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진안군(진안,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정천, 주천), 무주군(무주, 변암, 설천, 적상, 안성, 부남), 장수군(장수, 변암, 장계, 천천, 계남, 강진, 덕치), 순창군(동계, 북흥, 쌍치, 구립), 부안군(변산, 진서)
전라남도 54 (10.8%)	순천시(승주, 주암, 송광, 외서, 상사, 서, 황전, 월등), 나주시(다도), 광양시(봉강, 옥룡, 옥곡, 진상, 다압), 담양군(남, 대덕, 용, 월산), 곡성군(오곡, 삼기, 석곡, 죽곡, 고달, 오산), 구례군(문천, 간천, 토지, 산동), 고흥군(포두, 영남), 보성군(노동, 겸백, 울어, 북내, 문덕), 화순군(한천, 청풍, 이양, 도암, 이서, 북, 동북, 남, 동), 장흥군(용산, 장동, 유치), 강진군(대구, 움천), 영암군(금정), 장성군(서삼, 북이, 북하), 완도군(군외)
경상북도 121 (24.3%)	포항시(장기, 송라, 죽장, 기북), 경주시(양북, 양남, 내남, 산내), 김천시(봉산, 대항, 조마,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안동시(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예안, 도산, 녹전), 구미시(옥성, 장천), 영주시(평은, 순흥, 단산, 부석), 상주시(내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외서, 은척, 화남), 문경시(문경, 가은, 호계, 산북, 동로, 마성, 농암), 경산시(용성, 남천), 군위군(소보, 효령, 부계, 우보, 신성), 의성군(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읍, 신평, 안평, 안사), 청송군(청송, 부동, 부남, 현동, 현서, 안덕, 파천, 진보), 영양군(영양, 입암, 청기, 일월, 수비, 석보), 영덕군(남정, 달산, 지품, 축산, 영해, 창수), 청도군(각남, 운문, 금천, 매진), 고령군(덕곡, 운수, 성산, 우곡, 쌍림), 성주군(요암, 수륜, 가천, 금수), 칠곡군(지천, 동명, 가산), 예천군(상리), 봉화군(물야, 봉성, 법전, 춘양, 소천, 석포, 계산, 명호, 상운), 울진군(북, 서, 근남, 원남, 기성, 온정)
경상남도 82 (16.5%)	울산시(강동, 두동, 두서, 상북, 삼동), 마산시(구산, 진북, 진전), 진주시(미천, 명석), 통영시(도산), 밀양시(산내, 단장, 무안, 청도), 거제시(동부, 남부), 양산시(원동), 의령군(가례, 칠곡, 대의, 화정, 봉수, 궁유, 유곡), 함안군(여항), 창녕군(고암, 성산), 고성군(삼산, 하일, 상리, 대가, 영현, 개천, 동해), 남해군(이동, 상주, 삼동), 하동군(화개, 적량, 횡천, 북천, 청암), 산청군(산청, 차황, 오부, 생초, 금서, 삼장, 시천, 단성, 생비량, 신등), 함양군(마천, 휴천, 수동, 안의, 서하, 서상, 백전, 병곡), 거창군(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북), 합천군(봉산, 묘산, 가야, 야로, 쌍책, 대양, 쌍백, 삼가, 가회, 대병, 용주)
소 계	시: 35, 군: 69(읍: 23, 면: 475) 총계: 498

표 4. 농어촌 휴양단지 현황

도 명	단지명	위치	사업시행자	면적(ha)	지정년도	국고용자(백만원)
계	11	-	-	91.5	-	13,945
강 원	청 정	홍천군, 도천, 청정	홍천군수	10.7	1992	1,500
	당너머	정선군, 북면, 여량	정선군수	8.2	1995	1,400
충 남	한 산	서천군, 한산, 지현	서천군수	6.7	1990	1,400
	도비도	당진군, 석문, 난지	농어촌진흥공사	9.2	1993	2,000
	강당골	아산군, 송악, 강당	아산군수	1.0	1994	1,245
경 북	청 송	청송군, 청성, 부곡	청송군수	10.2	1989	1,500
	효 령	군위군, 효령, 성리	군위군수	7.7	1990	550
	낙 동	상주군, 낙동, 낙동	상주군수	5.2	1990	550
	낙 정	의성군, 단말, 낙정	의성군수	7.4	1992	700
	가 천	성주군, 가천, 중산	성주군수	13.8	1994	2,000
제 주	조 천	북제주군, 조천, 교래	북제주군수	11.4	1991	1,000

표 5.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 현황

도 별	농원수(개소)	지정면적(ha)	참여농가(호)	국고용자(백만원)
전 국	319	770.4	1,588	53,175
광 주	1	1.0	10	50
대 전	1	5.1	19	50
경 기	22	49.2	48	3,758
강 원	38	77.5	294	5,082
충 북	30	75.6	221	4,625
충 남	45	102.3	231	8,137
전 북	23	51.3	102	4,121
전 남	49	147.4	211	7,527
경 북	43	97.9	174	7,221
경 남	50	128.3	195	9,753
제 주	17	34.8	83	2,854

표 6. 민박마을 현황

도 별	민박마을(개소)	참여농가(호)	국고용자(백만원)	비 고
전 국	112	1,530	6,656	1995년 신규
경 기	8	88	530	민박마을 27개소
강 원	13	198	807	(참여농가 299개소)
충 북	14	190	728	지정
충 남	10	154	571	
전 북	13	182	757	
전 남	12	185	872	
경 북	20	236	1,057	
경 남	20	171	1,282	
제 주	2	26	72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후 1990년에 와서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휴양단지조성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1년에는 민박마을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농어촌 관광자원의 사업대상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용객이 많고 지역특산물의 판촉과 유명 관광명소가 인접하여 해수욕장, 낚시터 등 지명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이 편리하여 유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시설자금을 용자 지원해 주고 있다.

199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농어촌 휴양단지 11개소, 관광농원 319개소, 그리고 민박마을 11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정면적은 농어촌 휴양단지가 91.5ha, 관광농원이 770.4ha이고 민박마을 참여농가수는 1,530호에 이르고 있다¹²⁾.

5. 관광휴양과 산촌경제

관광이 일상생활권을 떠난다는 공간적 범위를 내포하고 인구 이동을 수반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볼 때, 관광자원개발은 도시지역사회와 농촌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각 지방마다의 독특한 자연적·문화적·환경적 특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방재정수입과 고용증대효과의 증대 그리고 낙후지역의 지역간 격차 해소 등 지역발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림의 1차적 기능은 목재와 같은 임산물 생산에 있으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산림환경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여 산림은 국민보건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서 최적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휴양 자원개발을 통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기술혁신에 따른 고도산업사회로서의 변천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여가에 대한 인식과 여가활동에 대한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산촌의 자연환경과 농업여건을 토대로 산촌의 부업소득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최근 여러 가지 형

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관광농원의 개발과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농경지 및 산림을 포함한 산촌휴양지 개발이 구상단계에 있다¹³⁾.

관광개발이 어떤 형태로든 국토의 일정지역에서 전개되는 한 관광개발은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레크리에이션 개발이 중요시되는 것은 그것에의 투자효과와 소비효과에서 기인하는 지역경제 효과이다.

그러나 관광자원개발의 효과는 관광개발의 양·질, 대상지역의 규모 그리고 관광자의 유형 또는 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들 요소의 특성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관광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피어스(Pearce)는 (그림 2)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관광대상(자원 및 시설)에 대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소비가 증대됨으로써 관광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관광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 편익일 수도 있고 부정적 비용일 수도 있는 것이다¹⁴⁾.

산촌지역은 척박한 토양과 경사 등으로 생산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율도 정체되거나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여건이 낙후되고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노동과 생산물의 시장화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적인 경향이 강하다.

산촌지역의 경제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의 농가경제통계연보(1990)을 분석한 결과 (표 7)와 같이 도시근교농촌, 평야농촌, 중간농촌 보다 산간농촌이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소득에 있어서 산간지역은 도시근교 및 평야농촌의 81.4%, 89.6%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산촌지역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임업, 목재산업의 경우 경제적인 개발 여건이 매우 취약하고 국내 임산자원의 부족으로 1991년 현재 목재 자급도는 13%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산림에 대한 자본투자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산촌경제는 새로운 다각적인 산지 이용 및 개발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한 매우 낮은 발전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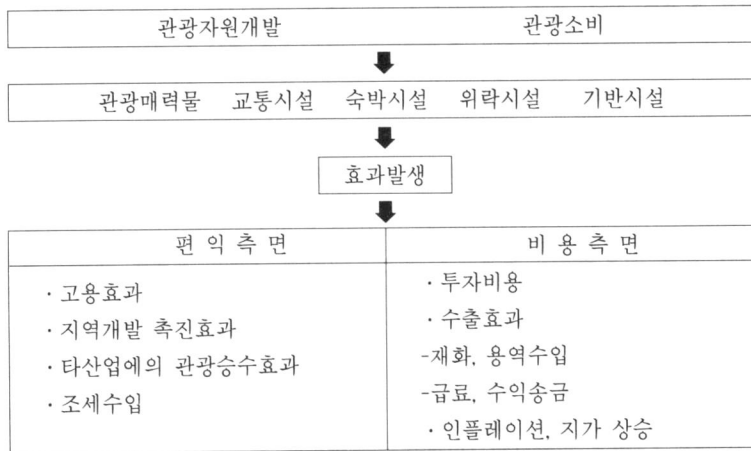


그림 2. 관광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

표 7. 지대별 농가소득 비교

(단위: 만원)

구분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
농업조수입(a)	807	865	850	730
농업경영비(b)	328	278	263	212
농업소득(a-b)	479	587	587	517
농외소득(c)	567	363	381	334
농가소득(a-b+c)	1046	950	968	851

자료: 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연보, 1990

표 8. 산촌지역주민의 이촌사유

(지리산지역)

계	생활곤란	자녀교육	화전정리	노동력부족	도시생활기대	기타
100%	44%	7%	28%	7%	7%	7%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진흥공사, 산지의 효율적 개발방향, 1987

표 9. 산촌관광 마을 현황('96)

계	조성	설계
9개마을	4개마을	5개마을
· 시범: 강원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경기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충남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전남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 일반: 충북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상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이촌 사유 사례연구 자료를 보면 (표 8)과 같이 이촌사유 44%가 생활곤란을 들고 있으며, 화전정리가 28%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경제적 빈곤문제가 이촌사유 72%수준에 이르고 있다¹⁵⁾.

이에 따른 산촌지역의 극심한 인구유출은 과소화 현상을 심화시켜 산촌지역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산촌지역내 풍부한 자원의 이용과 보존은 방치될 형편에 놓여 있다.

일본 산촌지역의 현황도 지난 25년간 20% 이상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고령화, 과소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인구감소와 유휴농지 증가 추세가 현상태로 지속될 경우 산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공간으로 변모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의 산촌지역개발은 그 전제가 산촌경제의 활성화로 산촌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림업적 생산 확대를 토대로 그들의 생활공간 그 자체가 도시민의 휴식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IV. 산촌의 관광휴양개발

1. 산촌과 관광과의 연계

가. 관광형 산촌정주권의 연계 개발 방향

지금까지 산촌은 산간오지에 위치하는 촌락이나 산림이 많은 지역으로 단순히 이해되어 왔으며 또한 산간지 농촌이라는 의미로 농촌개념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산촌은 임야율이 높고 경지율이 낮은 특징이 있어 토지이용 및 생산활동 방법에 있어 농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산촌은 시책적으로 농촌에 포함되면서도 농림부의 정책이나 산림정책의 대상에서도 과거에 산촌정책은 없었다. 그러나 산촌의 저소득과 과소화가 심화되면서 산촌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촌지역은 목재생산, 국토보전, 자연환경 보전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도시민들의 산촌지역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촌지역은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휴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그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이 향상되었고, 생활여건이 증대되었으며 국민들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수준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서도 여가생활에 대한 의식과 행태변화는 주목할만 하며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적일 것으로 보인다.

'91년에는 국민의 95%가 여가활동에 참여하였고, 2001년에는 99%가 여가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2%가 산악형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이와같이 산악형 관광휴양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수요가 바뀌어 가고 있다. 즉, 과거 산림의 주요 기능이던 목재공급 측면보다는 일상에서 탈출하여 자유롭고 조용한 자연의 산림공간내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형 산촌'은 개발하고자 할 때 가장 선호되는 개발 방향으로 산지에는 공업화나 대규모 경지 조성 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 나라의 산촌은 방치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정주 환경은 고사하고 자원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가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산촌에는 여전히 도시나 농어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고, 이들은 여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정주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¹⁷⁾.

정주권이란 인간이 정착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적·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즉 지역 주민들이 최소의 거리에서 그들이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할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공간 단위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의 생활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광형 산촌정주권은

이러한 일반적인 산촌정주권의 의미와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 즉 사찰이나 국보급 문화재, 국·공립공원이 있거나 이러한 천연적인 자연 자원에 인위적인 관광 유인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관광지로 용이하게 개발할 여지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산촌 정주 생활권 개발 유형은 주로 그 지역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찰이나 국보급 문화재, 국·공립공원이 있거나 장래에 수려한 자연 자원에 인위적 시설을 도입하므로써 관광지로 용이하게 개발할 여지가 있는 관광형 산촌생활 정주권이다.

둘째, 도시 근교형 산촌정주권이다. 이 유형은 도시의 주변지역이나 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한 산촌 등 주로 도시의 인구가 원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산촌 정주 생활권을 정비·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산림자원, 석탄, 석회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자원형 산촌정주권이다.

넷째, 위의 세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무특성형 산촌정주권이다. 이 유형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이나 비교우위론적 개발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협소한 경지 농업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특화작물이나 고랭지 채소재배와 같은 복합적인 영농기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¹⁸⁾.

관광형 산촌정주권의 연계 개발은 크게 2가지 관점인 물리적 연계성 강화와 심리적 연계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기초생활권과 중심생활권간의 연계 대상별 연계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1) 물리적 연계성의 강화

산촌정주권의 개발 내용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교통시설이다. 배후지와 중심지를 하나의 정주권으로 보았을 때 우선 교통시설을 확충해서 상호간에 긴밀한 소통과 접촉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교

통시설은 배후지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산촌의 경우 하루에 운행되는 시내버스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초래하는데, 정규 노선 외에 중심지와 배후지를 연결하는 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중심지의 기반 서비스 시설이 보다 다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하나의 기능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가 문제이지만, 개발의 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기능에 따라 중심지와 상위 도시 생활권과의 서비스 종류를 차별화 하여야 한다.

2) 심리적 연계성 강화

산촌정주권은 인간관계의 특성상 고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설에 의한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과 더불어 심리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교통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정주권에 주민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생활권내 주민들 사이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동일한 내용과 비슷한 시간내에 공유되도록 한다.

3) 연계 대상별 연계방향

교육, 행정, 의료·문화 및 기타의 4가지 연계 대상에 대해 교통, 통신, 제도등의 3가지 연계수단을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다.

관광형 산촌 정주권에 한정하여 이 유형에 가장 근사하게 접근될 수 있는 국내 사례로서 지리산 국립공원과 칠갑산 도립공원 인근의 청양과 구례 지역을 사례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가 되었는데, 사회 간접시설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양생활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 위탁시설, 주택, 교육, 보건, 상하수도 등 정주 환경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물리적인 정주환경

을 정비·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교통에 있어서는 도로의 확장이나 버스 운행 노선의 확충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하고, 1차산업 위주의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로의 확장, 저온 저장고의 신·증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공중전화나 공중목욕탕 등의 시설도 지원되어야 한다.

중심 생활권은 기초 생활권과 도시 생활권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나 버스노선의 확충이 가장 필요하고, 약국이나 병원등과 같은 의료시설, 복지시설과 기초 생활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이나 상수도 시설 등도 지원되어야 한다.

산촌정주권과 중심지 생활권과의 연계 방안은 산촌 주민의 복지, 고립된 산촌 정주권의 개발,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산촌개발의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¹⁹⁾.

2. 산촌관광 휴양의 개발사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산촌개발의 사례를 보면 어떤 곳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고, 어떤 곳은 관민이 협동하며 어떤 곳은 기업이 앞장서서 산촌을 관광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최근들어 일본에서는 관광휴양지 개발이 특히 지역 개발 수단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것은 관광휴양지 개발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간의 연구에서 보면 자금도가 높은 곳에서는 관광수입의 소득 유발효과가 크고, 숙박산업은 소득효과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이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고용효과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관광수입의 역외누출을 고려하지 않고 총액만을 가지고 지역소득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도 중시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관광의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항상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가인상, 전통문화붕괴, 환경훼손 등 부정적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도, 절대다수의 주민이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사 연구가 있어 산촌주

민의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는 아주 클 것으로 짐작된다.

가. 일본의 개발사례

일본에서는 개발주체에 따라서 산촌주민 주도형, 관민 협동형, 기업주도형 등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촌주민 주도형

사업 대상 마을은 산악형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임야면적이 87.3%나 되는 산촌으로서 기후는 내륙성 기후이고, 여름에는 고온다습하며 겨울에는 적설기간이 112일로 상당히 긴 자연조건을 가진 곳이다. 이 마을의 경우 겨울의 적설기간 중에 부근에 있는 온천을 방문하는 인구가 많고, 인구의 유출과 함께 과소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게 되자 관광산업을 도입 하자는 안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마을진흥 발전대책의 기본방침이 된 것이다.

관광개발의 진행단계는 제 1단계에 마을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마을 북쪽에 스키장을 개설하였다. 제 2 단계에서는 스키장 정비, 자연휴양촌센터 건설, 관리 사무소 및 판매소의 정비, 체육관의 신·증설, 탐방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스키장과 민박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다. 그리고 마을의 동북부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을 표고 1,420-1,685m에 달하는 고원지대에 지정하여 그 안에 야외무대 및 광장, 테니스장, 캠프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2) 관민협동형

사업 대상 마을은 인근의 3개시로부터 버스로 40-70분 거리에 있는 산촌으로서 기복이 심한 산간경사지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총면적의 69.3%가 원시림이며, 하천이 26.2%, 농지는 17.3%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경우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은 없고 강과 호수가 마을을 산촌다운 경관을 느끼게 해주는 점밖에 없는데 관공서가 앞장서서 “고향 산촌 신마을회”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초기에는 6가구에서 민박을 시작하고 있던 것

을 마을회를 발족하여 이용회원을 집단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마을회의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을 제공하고, 친화감을 통한 이상적인 “마음의 고향을 만드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비는 한 가구당 일정액을 내면 3년간 유효한데, 회원의 경우 “특별마을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 즉, 고향의 집을 소개해주고, 고향의 땅을 경작토록 해주며, 고향 산의 수목을 이용하게 한다. 또한 고향의 강과 호수에서 낚시나 수영을 할 수 있게 하고, 고향의 산에서 곤충채집과 식물채집을 가능하게 하며, 고향의 캠프장에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기업주도형

본 대상 마을은 스키장 이용객중 동경 수도권 거주자가 70%, 주변 거주자가 30%에서 보여주듯 수도권 주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지형상으로 산악관광지인 스위스의 짜로우 지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점에 착안하여 기업측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짜로우 지방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시설개발을 전략으로 세우고 이곳을 리조트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개장한 스키장에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골프장, 호텔 등 각종 시설을 추가로 유치한 것을 계기로 이곳은 마침내 종합휴양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기업측에서는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도산품 우선이용, 지역상점의 우선활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것 또한 특이한 점이다.

3. 산촌휴양·관광개발의 경제적 가치 분석

이상과 같은 산촌휴양·관광개발을 위한 계량적 기초자료와 함께 산립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편익 비용 분석 방법론 등의 도입은 새로운 학문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 편익·비용 분석의 이론적 배경연구

편익·비용 분석방법은 1930년대 미국에서 수자원

개발 사업의 평가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수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정부가 참여하는 주요 수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편익·비용 분석의 지침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950년에 완성된 편익·비용 분석의 지침서는 Green Book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책은 그 당시 새로운 분야로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하던 자원경제학을 응용하여 그 이론적 바탕을 삼은 것이다. 편익·비용 분석은 1960년대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그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수자원, 철도, 항만, 도시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 투자계획, 교육 투자계획, 공해방지 투자 등 광범위한 공공투자 계획의 평가에 쓰이고 있다. 편익·비용 분석의 기본개념은 간단하다. 어떤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보다 큰 편익을 가져오는 사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산촌의 이용개발시 타당성 분석은 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편익과 비용의 총계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편익·비용 분석은 사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평가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이때의 편익과 비용은 사적 편익과 비용만을 가지고 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적 후생극대화 측면에서의 편익·비용 분석을 경제분석이라고 하는 반면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분석은 재무분석이라고 한다.

4. 관련계획 및 법규의 분석

가. 관련계획의 분석

산촌휴양·관광개발과 관련한 상위관련계획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신경제 5개년계획,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 등을 조사분석하여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분석한다.

나. 관계법규의 분석

관계법규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농어촌

정비법, 산림법, 농지법 등을 검토하여 산촌휴양·관광 개발 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5. 산촌의 관광휴양 개발 모델설정

가. 산촌의 관광휴양자원 현황 분석

우리나라 관광휴양자원을 살펴보면, 관광활동을 유발하는 관광대상 즉,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산업자원, 레크레이션 자원을 지니며 개발이 가치가 높고 관광객의 이용행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법규상 관광자원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온천지, 운동·휴양지구, 관광농원, 주말농원, 민박마을, 청소년수련원, 자연학습원 등이 지정되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도·농간 경제교류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산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의 현황을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산촌의 관광·휴양 개발 사례조사

대표적인 휴양·관광 개발지인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의 향상을 기하고자 지정되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다.

또한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되는 관광지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인 관광단지 등의 개발현황을 사례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다. 산촌의 관광·휴양수요 및 공급방안

산촌의 관광·휴양개발에 대한 수요는 이용객들의 산촌관광·휴양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향후 산촌의 관광·휴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산촌 이용객의 수요전망은 현재 조성중이거나 운영중인 산촌 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미비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촌 관광수요를 예측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산촌 관광수요 전망은 전국 관광객 수요전망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급방안은 통상 “적정수용능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적정수용능력이란 자원을 적절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가운데 일정 기간동안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이용량인 원단위 설정방법에 의한다.

라. 산촌의 관광·휴양개발 활성화 방안

도시와 산촌은 산업활동, 산업의 역할, 인구밀도, 생활환경, 환경생태 등의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사회적인 공간개념이나 발전적인 시간개념에 모두 해당된다.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이촌현상으로 도시 거주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도시민들의 도시생활로부터 벗어나 산촌으로 이주를 꾀하려는 탈도시화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농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신선한 농수산물의 구입,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여가활동, 여유있는 생활형태와 전통적인 문화체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와 영농작업의 체험을 통하여 정서의 순화라는 효과와 함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산촌에서는 도시민의 교류에 의하여 농어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산촌의 새로운 활로는 물론 농어촌 마을 정비 및 지역개발 촉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 산촌의 관광·휴양개발 모델 설정

산촌의 관광·휴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관련되는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의 대상과 목적물이 되는 산촌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여 산촌 관광진흥에 기여하게 한다.

이에 따라 산촌관광·휴양의 유형분류를 위해서는 참고문헌조사, 국내의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지의 구성요소인 자원과 시설, 입지조건, 이용목적, 법과 제도, 개발주체 등에 따라 산촌의 관광·휴양개발의 모델을 최종적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모델설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분석내용과 국내의 사례조사에서 얻어진 관련자료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산촌휴양·관광 개발 모델을 설정한다.

둘째, 산촌휴양·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국내의 사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도·농간 경제교류 증진, 산촌의 소득원 창출 효과, 산촌지역개발과 지역재정 확충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셋째, 개발 모델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최적의 개발 구상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산촌휴양·관광개발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속가능한 산촌개발로서 생태관광의 도입

여기에서는 우리의 산촌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안의 일종으로 생태관광을 도입하려 한다. 생태관광의 개념과 생태관광의 특징과 생태관광자원의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태관광의 특징

생태관광은 자연에 바탕을 둔 소극적, 교육적 관광, 사파리형태의 관광으로 특별한 소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생태관광의 특징이다.

1)자연에 바탕을 둔 관광: 생태관광은 속성상 자연에 의존하며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연이

생태관광의 근본이 되므로 자연보호·보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2)소극적 관광: 생태관광은 자연의 재생·회복 기능을 무시하는 적극적 개발이 용인되지 않는 관광으로, 최소한의 피해와 훼손만이 용인된다.

3)교육적 관광: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체험하고,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내용이 강조되는 관광으로 경제·시간적 여유가 있고 문화수준이 높은 층에서 주로 이용한다.

4)사파리 형태의 관광: 자연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모험여행이다.

5)특별한 소재를 내용으로 한 관광: 희귀한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강조되어 전문관광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6)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지역사회는 자연자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관광은 그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생활방식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지역사회의 전통문화, 자연자원, 산업이 잘 결합된다면 생태관광은 주민들의 저항없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이다²⁰⁾.

나. 지속가능한 개발로서의 생태관광의 도입

경제발전과 편리한 교통수단,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는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부국가들은 환경친화적, 자연친화적 관광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호·보전하는 대안으로 생태관광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자연을 합리적, 보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범위내에서 관광의 이점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 생태관광이 도입되었다.

생태관광은 환경과 인간이 상호공존하는 유기체가 되도록 도모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관광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고무시킨다. 또한 환경보전의식이 있는 관광객이나 사회단체를 유인하는 '질적 관광'을 도모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남용하지 않고 보전을 꾀한다.

생태관광은 관광객의 수요충족에 대응하면서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재생능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하면서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관광자원의 보호·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현재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용하자는데 참뜻이 있다. 최근 생태관광의 개발방향은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되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하고,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무분별한 대규모 시설건설로 자연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어 있으며, 사전적 예방조차 차원이 아닌 사후적 관리를 하는 실정이다. 더 이상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보전시키는 방향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절실히 요망된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야생조류,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²¹⁾.

다. 생태관광자원의 개발

현재 자연에 바탕을 둔 생태관광은 보전 상태가 양호한 미개발 지역에 원시림, 야생지, 호수, 고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에게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빙하, 무인도, 습지대, 우림, 사막 등 무가치한 자원도 존재 가치가 인정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는 빙하와 툰드라지역을 관광자원화하고 있으며, 열대지역의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케냐는 광대한 밀림을 산림공원과 동식물 서식지로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후보지는 국립공원, 해상공원 등 자연공원과 자연보전지구가 있다. 특히 고산극상림, 고산 늪, 호수, 하천, 늪, 해안에 위치한 자원보전지구는 비교적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관광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곳이 많다. 생태관광 잠재지역으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해안지역,

습지지역, 상수림 등의 생태계 보전지역이 있다²²⁾.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 요소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외국의 생태관광상품은 생태관광자원과 주위의 문화유적, 산업, 역사 관광지들이 패키지 투어의 형태로 묶여져 있다. 이렇듯 생태관광은 가까이 있는 다른 관광자원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생태관광은 한 유형의 관광산업으로서 야외의 휴양의 요소와 환경운동의 요소가 소비자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생태지역에 대한 관광 경제학적 측면이 고려된 개발 모델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 사례로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 사파리, 록키 산맥의 등반과 안데스 산맥의 하이킹 그리고 극동아시아 지역의 종교 순례여행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의 거의 모든 등산활동의 사진촬영, 탐조모임, 국토문화순례 등은 전형적인 생태관광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²³⁾.

생태 관광이 최근에 갑작스런 붐을 이룬 것을 도시화와 산업 사회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볼 수 있다. 자연을 접하고 싶은 녹색 갈증의 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환경적인 관광에 대한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생태 관광객은 분명히 전통적인 관광객과 차별화될 수 있다. 그들은 자연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적극적·활동적이며, 유사한 관심 집단에 속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새로운 야외 기술을 익히기를 원하는 보전주의자이다.

생태관광객은 온화한 날씨, 안전하고 눈에 익은 환경의 안락함, 특급호텔 그리고 일류 레스토랑 등에 별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환경과 지역 문화 그리고 개발의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생태관광은 새로운 도전이며 극복하여야 할 난제이다.

우리의 선조는 국토를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굽이 굽이 흐르는 깨끗한 물과 수려한 풍경, 온갖 야생 동물이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땅으로 기억하고 있다.

알프스나 그랜드 캐년과 깊은 웅대한 산과 계곡은 아닐지언정 각각의 지형이 나름대로의 문화적, 생태적 의미를 갖고 생동하는 땅이다. 면적은 넓지 않아도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구별되는 땅

이며, 코끼리와 기린, 유카리투스 같은 거대 야생동식물은 없어도 계곡마다 봉우리마다 기기묘묘한 조화로 신비로운 생태계의 자태를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우리의 땅은 생태관광의 측면에서 바라볼때 있는 그대로의 자원이다. 단지 문제는 우리의 땅을 생태관광을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느냐에 있다²⁴⁾.

급속한 산업화와 80% 내외의 도시화율은 자연에 대한 회귀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이는 곧 자연생태계라는 상품에 대한 유효수요의 증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의 개발들이 선행되고, 시간과 돈 등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인 장해요소가 해소될 때에 유효수요는 현실화되어 생태관광의 참여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관광 참여의 일반적인 행동변화가 생태관광의 미래 수용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90년대까지 주도되던 시설·서비스형, 관광 방문형의 관광행동은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자원중심형의 참여 체험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용의 눈물"의 촬영지인 전주시 경기전이 역사문화 관광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관광행태라 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또한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도록 관광대상지의 자연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태관광 자원의 개발은 참여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며 관리 운영상의 특성을 적절히 부여함으로 진정한 생태관광의 단계로 진입보할 수 있다.

IV. 산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1. 산촌관광의 활성화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구조밀 국가이다. 그리고 국토의 65%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경지 면적당 인구밀도는 세계 1위의 국가이다. 따라서 산지를 개발하여 생활공간을 확대하는 일은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과제의 하나이다.

농촌지역중에서도 산촌지역은 토지의 생산성이 낮

고, 인구가 희박하다는 2차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심지의 규모가 작고, 도시의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주민 생활의 질이 뒤떨어져 주민이 유출되어 인구가 줄게 된다는 3차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산지가 가진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공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산지개발은 미래의 국토개발이 지향할 기본적인 방향의 하나이다. 산지개발이 능률적으로 추진되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산촌지역에 주민이 터잡고 살 수 있도록 취락체계를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산촌관광의 개발 가능성

가. 산림자원 자체 측면

산림자원이 관광휴양 측면에서 어떠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매력이 매력수요자를 산촌에까지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자연 경관의 기본적 매력 요인으로는 원시적 자연미, 신비로움, 특이함 그리고 보양성을 들 수 있으며 인문경관은 역사성과 특이함을 매력의 기본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이 주로 산에서 느끼는 신비감이 95%이상이므로 대단히 매력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산촌을 중심으로 한 산림자원 자체가 관광휴양 수요자들을 유인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나. 수요자 측면

산림공간에서 관광위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문 목적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선행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촌의 관광위락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즉, 피로회복 및 휴식(22.6%), 자연풍경지 감상(15.9%), 친목도모(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국·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대한 방문목적과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방문목적의 순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관광행태의 변화성향 가운데서 주목할 부분으로 여러 곳을 돌아보는 주유형 관광에서 선호하

는 지역에 체재하면서 휴식하고자 하는 경향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산촌을 중심으로 한 산림공간의 개발은 이러한 수요자층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다. 공급자 측면

산촌을 중심으로 관광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개발 및 경영에 소요될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촌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산림뿐이다. 그리고 이미 조성된 산림자원에 대한 과학적 영림관리와 질 좋은 목재생산을 위해서는 전문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기능인력은 필요량의 1% 정도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3차산업인 관광휴양지를 개발하더라도 산촌주민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단순기능직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1차 산업인 임업에 대한 기술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성격이 판이한 손님을 접대해야하는 관광서비스 산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종래 농업의 개념에서 대상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상당히 소요되어 농가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손님을 맞아들여 관광농업자체를 경영하는 기술측면에서도 주목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광농업사업이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는 주된 원인임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욕만 앞세워 산촌중심의 관광휴양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라. 법·제도적 측면

산촌에서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려면 현실적으로 법이나 제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상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산지관련 개발에 있어서 변경·승인절차는 약 140여개의 사항이 있는데, 이들은 복잡하고 또 서로 상충적이어서 행정업무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고, 책임소재의 불명확,

처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발이용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의 산림정책은 국유림 중심의 치산녹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근년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휴양림 개발도 스키, 스포츠 등 늘어나는 가족위주 관광휴양성향의 동적인 잠재 수요는 외면한 채 소극적이며 정적인 수요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3. 산촌개발의 방법과 개발우선순위

가. 산촌개발의 방법

인류사회는 그 지역의 자원이 고갈되어 보수적인 전통방식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방식의 자원이용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오늘날의 세계는 더 이상 자연생태계에에만 의존하지 않고, 타지의 에너지와 다른 자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전 지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존방식은 전 지구적으로 자원고갈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고, 특히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한 자원의 집중이용은 지역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 자원들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산촌문화는 극단적으로 단순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보존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산촌의 매력에 도취되어 산촌의 발전에 헌신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

도시 삶 속에서 엄청난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은 도시를 탈출하여 휴일이면 자연과 접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빼어난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인들이 그들의 삶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사업일 것이다.

관련부처가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여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산촌 진흥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산촌개발 우선순위

산촌마을 구분과 개발 우선순위에 있어 김²⁶⁾은 산촌개발의 중요도에 의한 마을구분 방법으로 조사마을을 산촌개발의 중요도에 따라 개발대상마을, 개발유보마을, 개발제외마을로 구분하였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대상 마을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투자성과를 높이고 산촌개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²⁶⁾.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산촌개발 중요도에 의한 산촌마을 구분현황은 리(里)단위로 산촌개발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전국 평균 결과는 5,121개 법정 리 중 개발대상 마을이 17.1%(875개리), 개발유보마을이 22.6%(1,159개리), 개발제외마을이 60.3%(3,087개리)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추가마을 108개 리는 개발 대상마을과 개발유보마을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도별 산촌개발의 중요도에 의한 마을 구분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마

을중 개발대상마을은 전북(21.2%)과 경남(24.2%)을 제외한 다른 도 모두가 20% 미만으로 구분되었고, 개발유보마을은 모든 도에서 30% 미만으로 구분되었으며, 제외마을 또한 모든 도에서 5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산촌개발 중요도에 의한 산촌마을 구분중 개발대상 마을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촌개발 우선순위의 중요도에 따라 최우선 개발마을, 우선 개발마을, 기타마을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⁷⁾.

4. 전북 진안군의 산촌관광·휴양개발의 사례 연구

가. 진안군 현황

산림청의 산촌구분지표에서 산촌으로 분류된 진안군은 전라북도 동북부에 위치하며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분지로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이자 발원지이다. 또한 임야가 80% 이상인 산간오지이며 농

표 10. 각 도별 산촌개발 중요도에 의한 산촌마을 구분현황

(): %

도	조사마을 시·군수	조사마을 읍·면수	조사마을 계(D)=A+B+C	개발대상마을 (A)	개발유보마을 (B)	개발제외마을 (C)
경기도	시 : 2	읍 : 2	256	27	26	203
	군 : 8	면 : 31	(100)	(10.6)	(10.1)	(79.3)
강원도	시 : 4	읍 : 12	879	121	190	568
	군 : 11	면 : 84	(100)	(13.8)	(21.6)	(64.6)
충북	시 : 2	읍 : 2	562	65	151	346
	군 : 7	면 : 47	(100)	(11.5)	(26.9)	(61.6)
충남	시 : 5	읍 : 1	287	44	41	202
	군 : 5	면 : 23	(100)	(15.3)	(14.3)	(70.4)
전북	시 : 3	읍 : 4	485	103	126	256
	군 : 8	면 : 58	(100)	(21.2)	(26.0)	(52.8)
전남	시 : 3	읍 : 3	587	106	137	344
	군 : 14	면 : 56	(100)	(18.1)	(23.3)	(58.6)
경북	시 : 10	읍 : 4	1,374	240	371	763
	군 : 12	면 : 12	(100)	(17.5)	(27.0)	(55.5)
경남	시 : 7	읍 : 2	691	169	117	405
	군 : 11	면 : 90	(100)	(24.2)	(17.0)	(58.8)
계	시 : 36	읍 : 30	5,121	875	1,159	3,087
	군 : 76	면 : 514	(100)	(17.1)	(22.6)	(60.3)

경지의 90%가 표고 250m이상에 위치한 고냉지역이다. 진안군의 인구는 1980년 78,502명에서 1991년 41,260명으로 연평균 -5.3%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군세가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11.7%를 차지하는 등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용담댐 건설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 상황의 불편으로 인적, 물적 및 정보교류가 곤란하며 농업 의존도 83%로 매우 높은 편이다.

경제적 상황으로는 농업이 지역생산액의 82.5%를 차지, 주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71%가 농업인구로 호당 경지면적은 1.12ha로 전국평균 경지면적인 1.23ha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이 취약하여 일반회계 재정의 대부분을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92년도 경우 87.2%)하며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의 7.2%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²⁸⁾.

나. 산촌의 관광 · 휴양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진안군에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공원으로 국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없으며, 1979년 10월 16일 지정된 마이산 도립공원 1개소가 있다. 또한 지정관광지로는 1990년 12월 27일 지정된 면적 0.596km²의 운일암 · 반일암 관광지가 주천면 대불리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로는 보물 1점, 천연기념물 2점으로 3점이 있으며 지방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7점, 기념물 4점, 기타문화재 8점으로 총 19점이 산재해 있다. 민속문화재로는 매년 10월 11일에 개최되고 있는 마이산제가 있는데 이때 궁중무용인 몽금척 무용도 공연하고 있다.

관광 특산물로는 인삼과 표고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인삼은 수삼으로 연 1,620M/T, 표고는 연

50M/T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1980-1990년간 진안군의 관광객은 연평균 6.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북도의 '81-'91년간 연평균 8.22%의 증가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육로, 철도, 항공 등 제반 교통여건이 불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다음이 관광자원의 부족, 관광지원시설의 열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98년 현재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동적 관광시설의 절대적 부족 및 인삼, 표고를 제외하고는 관광특산품의 개발이 저조하며 아울러 관광산업의 미약으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²⁹⁾.

2) 개발방향

용담다목적댐 건설과 국도 26호선의 4차선 확 · 포장 공사완료 후의 진안군에 대한 관광매력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주민 소득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문이 관광산업임에 비추어 볼 때 관광산업의 저변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의 신규개발, 지원시설의 확충, 특산품의 개발, 꽃재배와 진안의 꿀을 연계하는 관광이벤트 산업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관광농원, 축산단지, 내수면 담수어 양식장 등의 확충개발과 관광지별로 특색있는 전통식품과 무공해 천연식품의 개발, 가공으로 관광의 매력도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한다.

자연환경을 고려한 용담댐의 관광자원화 추진과 도립공원 마이산의 관광개발을 활성화한다.

V. 결론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5%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으로 둘러 쌓여 있는 지역 즉, 산촌지역이

표 11. 관광자원(도립공원 및 지정관광지)

(단위: km²)

구분	자원명	위치	면적	지정년월일
도립공원	마이산	진안군 진안읍	16.90	1979. 10. 16
지정관광지	운일암, 반일암	진안군 주천면	0.596	1990. 1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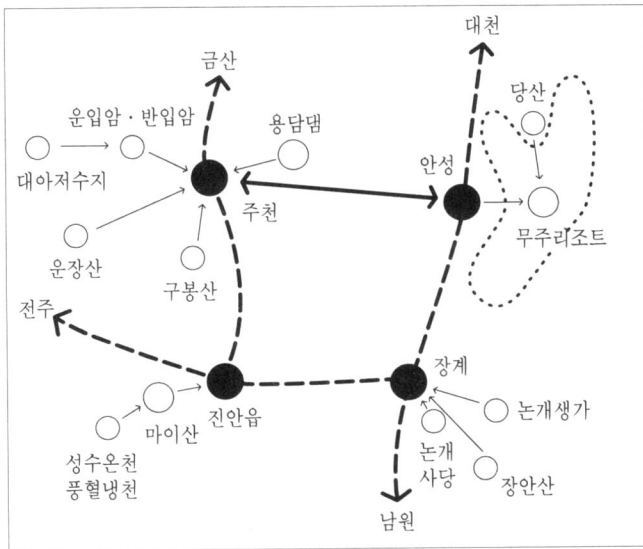


그림 3. 진안군의 관광개발 개념도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산촌지역은 고도 경제 성장 위주의 사회 발달 과정에서 구조적·입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관계로 낙후지역, 후진지역, 사회적 공백지역 등 문제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산지이용은 임업차원의 개발과 국민관광지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등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레저 위락기능을 위한 개발에 머무르고 있어서 산지의 다양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의 주요산업인 임업, 목재업이 갖는 구조적 취약성은 산촌경제를 정체시키는 요인이 됨으로써 산촌지역의 과소화와 인구성상의 고령화를 진전시켜 산촌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산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산촌 경제력의 배양과 산촌주민 복지향상 도모와 함께 지역격차의 시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촌진흥법을 제정하여 산촌지역의 부흥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우리나라의 산촌지역개발은 그 전체가 산촌경제의 활성화로 산촌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림업적 생산 확대를 토대로 그들의

생활공간 그 자체가 도시민의 휴식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산촌 문제의 상당부분은 산촌에 관광 휴양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기존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산촌을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 산촌 주민만의 산촌이 아니라 산촌을 아끼는 사람, 그리고 산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찌든 심신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며, 사색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곳, 도시인과 산촌주민이 교류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촌자체가 지닌 제반특성, 수요자들의 욕구, 적절한 개발방법 및 사례,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에 관하여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촌지역의 경제효과 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산촌은 관광휴양 수요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으나 산촌에서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관광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 가도 우려되고, 법과 제도 또한 관광휴양활동을 산촌개발의 기회인자로 도입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관광휴양활동을 도입할 경우에 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물가인상을 초래하거나, 산촌지역의 문화를 붕괴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산촌진흥을 위해서는 산촌내부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산촌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이 그러했듯이 산촌 주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도시민의 입장이나 여타의 목적을 수반하는 사업이 산촌진흥사업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산촌주민을 위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웠지 도시주민의 편익이나 기타 다른 목적만을 중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산촌의 모습은 첫째, 전통적 문화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 및 의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열린사회로의 산촌, 전통적인 산촌의 생활문화를 지키면서 도시적인 생활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체제, 다시 말하면 기존의 산림이 좀더 포용력을 갖춘 열린사회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인이 즐겨하는 것들을 산촌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활동은 도시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산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구현하여 산촌지역에 가면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전혀 색다른 생활환경과 문화양식을 접할 수 있도록 산촌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색다른 생활환경과 문화양식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분야로서의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조화, 보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행태라 할 수 있다. 생태관광이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관광” 또는 “자연을 대상으로 자연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관광”으로 생물다양성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연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이 풍부하면 할수록 생태관광은 경쟁력을 가지며, 자연애호가들이 주류를 이루는 관광수요에 더욱 부응할 수 있다.

결국 생태관광의 발전의 지향점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으며, 이러한 상호조화를 통해 고용촉진, 희귀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산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관광휴양개발의 목표일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헌

- 1) 박명규 외, 1993, 우리의 산촌-산속마을의 새로운 진로-, 일신사.
- 2) 상계서
- 3) 김의강, 손철호, 1995, 산지지역 구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4(3), pp.343-355.
- 4) 우리의 산촌, 산속마을의 새로운 진로, 박명규 외, pp.19-20.
- 5) 상계서
- 6) 산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위한 산촌구분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金鍾造의 2명 p.120.
- 7) 우리의 산촌, 산속마을의 새로운 진로, 박명규 외, p.18.
- 8) 상계서
- 9) 상계서
- 10) 김종호, 1997, 산촌지역 구분과 성격, 산림 6월호, pp.72-82.
- 11) 김종호, 1997, 산촌지역 구분과 성격, 산림 6월호, pp.72-82.
- 12) 한국관광공사, 1996,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 13) 박명규 외, 1993, 우리의 산촌-산속마을의 새로운 진로-, 일신사.
- 14) 김홍운 외 1인, 1994,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 15) 전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3, 산림도시개발 및 계획에 관한 연구.
- 16) 한국산업개발연구소, 1989,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 17) 관광형 산촌정주권의 연계개발방향-청양, 구례 지역을 중심으로-, 강병수 외 3명, p.91.
- 18) 관광형 산촌정주권의 연계개발방향-청양, 구례 지역을 중심으로-, 강병수 외 3명, pp.92-93.
- 19) 관광형 산촌정주권의 연계개발방향-청양, 구례 지역을 중심으로-, 강병수 외 3인, p.103.
- 20)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 p.17.
- 2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 pp.176-177.
- 2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 p.182.
- 23) 세계화 시대의 관광산업 발전과 전략, 일신사, 이연택 외 공저, pp.240-241.
- 24) 세계화 시대의 관광산업과 전략, 일신사, 이연택 외 공저, pp.242-243.
- 25) 산촌마을 구분과 개발 우선순위조사, 김종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 1998. 7, pp.70-77.
- 26) 산촌마을 구분과 개발 우선순위조사, 김종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 1998. 7, p.71.
- 27) 상계서
- 28) 진안군, 1994,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1994-2003).
- 29) 상계서

참고문헌

1. 交通部, 1989, 觀光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韓國觀光公社.
2. 경제기획원, 1984,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방침.
3. 김동민, 1978, 일본의 산촌개발, 농촌경제 1(1), pp.35-46.
4. 김명록, 1983, "취락구조개선지역의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 연구논총 제8집 제4권, 새마을연구회.
5. 김수옥, 1980,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농업교육학회.
6. 金永彬 編著, 1994, 造景·觀光·리조트開發의

實際論, 東和技述.

7. 김의강, 손철호, 1995, 산지지역 구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4(3), pp.343-355.
8. 김종호, 1997, 산촌지역 구분과 성격, 산림 6월호, pp.72-82.
9. 김종호, 1998, 산촌마을 구분과 개발 우선순위조사, 산림 7월호, pp.70-77.
10. 김홍운 외 1인, 1994, 관광자원론, 형성출판사.
11. 金供雲, 1985, "觀光農業의 開發에 關한 小考" 地籍, Vol 15, No. 5.
12. 농림수산부, 1991, 1992년도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추진 요령.
13. 文玉均, 1991,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농촌의 위상 : 1980년대 일본농촌 부흥운동의 의미", 농촌사회학, 나남출판사, (창간호), pp.211-249.
14. 박명규 외, 1993, 우리의 산촌-산속마을의 새로운 진로-, 일신사.
15. 서미석, 1984, 전남 구례지방의 산촌에 관한 연구-토지면 내동리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6. 孫大鉉, 1985, 관광마케팅론, 일신사, p.390.
17. 宋大熙·柳炳瑞, 1985, 産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한국개발연구원.
18. 송해균, 1982,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인력의 효율적 개발", 서울대 농학연구, 제7권 제1호.
19. 안영복 외 1인, 1983, "농촌취락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 연구논총 제8집 4권, 새마을연구회.
20. 양운재, 1985, "주거환경설계방법론", 환경논총, 서울대학교 대학원.
21. 柳善茂, 1984, 觀光農業의 開發과 經營, 螢雪出版社.
22. 이광원, 1986, 산촌의 문제상황과 국토공간상의 위치-산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농촌경제 제9권 제4호, pp.101-112.
23. 李貞煥 外, 1987, 農家所得의 決定과 分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이지용, 1989, 관광개발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25. 李質鉉, 1986, 觀光農業 開發論, 亞細亞文化社.
 26. 전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3, 산림도시개발 및 계획에 관한연구.
 27. 정철모, 1983, "농촌발전과 농촌계획", 국토계획학회 발표논문.
 28. 정철모, 1987, "농촌정주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개발방향", 농촌경제 제10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 진안군, 1994,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1994-2003).
 30. 최양부, 1984,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 최양부 · 이정환, 1987, 산업사회의 농촌개발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崔敏浩 · 鄭址雄 · 金性洙, 1988, 綜合農村開發論 : 要求分析的 接近의 理論과 實際, 서울 大學 校出版部.
 33. 韓國觀光公社, 1978, 國民觀光開發理論 및 外國의 開發事例, p. 209.
 34. 한국관광공사, 1996, 농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35. 韓國觀光公社, 1989, 全國觀光長期綜合開發計劃 (報告書).
 36. 한국관광공사, 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산촌 휴양지 개발방향과 휴양체계.
 38.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1991, 한국 농업 이길로 가야한다, 비봉출판사.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개방경제체제에 대비한 한국농업의 대응방안".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방향".
 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농촌지역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농촌지역종합개발 연구의 과제".
 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2000년대를 향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구상", 전남강진권 사례연구.
 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한국농업의 발전모형 연구".
 47. 吉村元男 · 芝原辛夫 共著, 1993, 水邊의 計劃と 設計, 鹿島出版會.
 48. 大內雅利 · 高田 滋, 1979, "近郊農村における 地域社會の 變貌", 村落社會研究 15, pp.163-189.
 49. 大內雅利(Oouchi Masatoshi), 1987, "農村社會の 變動": 蓮見音彦 · 山本英治 · 高橋明善 編著, 日本の社會 1: 變動する日本社會, 東京大學出版會, pp.103-130.
 50. 松浦茂樹 · 島谷辛宏, 1991, 水邊工間の魅力と創造, 鹿島出版會.
 51. Carlton, S. Van Doren, George, B. Priddle and John, E. Lewis, 1990, Land & Leisure.
 52. Donald, R. Satterlund, Paul, W. Adams, 1992, Wildland Watershed Management, John Wiley & Sons.
 53. E. Inskoop, 1991, Tourism Planning: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Van Nostrand Reinhold, 1991, p. 252.
 54. E. M. Bridges, D. A. Davidson, 1982,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Soil Geography, Longman.
 55. Glenn, O. Schwab, Richard, K. Frevert, 1985, Elementary Soil and Water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56. Harlow, C. Landphair, John, L. Motloch, 1985, Site Reconnaissance and Engineering, Elsevier.
 57. Phillip, J. Craul, 1992, Urban Soil in Landscape Desing, Joh Wiley & Sons.
 58. Raymond, B. Daniels, Richard, D. Hammer, 1992, Soil Geomorphology, John Wiley & Sons.
 59. Richard, K. Untermann, 1978, Principles and Practies of Grading, Drainage and Road

- Alignment: An Ecologic Approach, Reston Publishing Company.
60. Ronald, Lee, Fleming, Renata, Von Tscharnier, 1987, Placemakers: With an Essay on Planning and Policy, Harcourt Brace Jovanovich.
 61. R. Webster and M. A. Oliver, 1990, Statistical Methods in Soil and Land Resource Survey, Oxford University Press.
 62. Sherry, Dorward, 1990, Design for Mountain Communities, Van Nostrand Reinhold.
 63. Stephen, Kaplan & Rachel, Kaplan, 1982, Humanscape: Environments for People, Ulrich's Books.
 64. Theodore, D. Walker, 1987, Design for Parks and Recreation Space, PDA.